"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십니다 "

■ 이종윤 원로목사

- 두 도성의 이야기 -

그리스도인은 부패한 옛 본성 즉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듭난 사람이다. 기질상 노함과 분을 제거하고, 언어상 훼방과 욕설과 거짓말을 끊어 버리고, 원리상 죄의 몸은 죽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된 자아(自我)를 가리킨다.

새 창조함을 입은 사람은 죄 문제에서 풀려나 도덕적인 변화를 경험한 내면적 변화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대인관계에서도 새롭게 변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즉 인종적 차별이 없고 헬라파나 무할례파 즉 종교적 구별이 없고 야만인 스키디아인이나 헬라어를 구사하는 헬라인을 구분치 않는다. 종이나 자유인 즉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로 인간을 나뉘는 것이 없다. 오히려 이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하셨다. 심지어 천국에서는 성정도 없다 한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유일한 표지는 인종, 종교, 문화, 경제, 성별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에 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곧 만유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본질상 모든 것의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것은 곧 거룩함, 성결함, 순전함, 영원함 진실로 그 분이 모든 것의 전부이시고 그분을 소유한 각 개인도 그렇다. 이 보배같은 주제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독자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고 사는 복을 누리시기 바란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다 하지 않았다. 새사람으로 새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신다고 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다. 약간은 인정하나 크게 인정하지 않는 이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시 하지만 그분이 전부가 되신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백한 이로 보기엔 어렵다. 칭의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기 의로 덮으신다. 성화나 견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도 중보자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가 없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보혜사 · 변호인이 필요하듯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 만유시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 불같은 화살을 쏘고 죽이려 덤벼드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패시요 갑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탄을 정복하신 우리의 만유시다. 세상과 싸울 때도, 시험이 와도, 가난과 질병이 덮쳐도,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가 와도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만유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채우시고 도우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차별을 넘어 만유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도, 우리와 우리 원수 사이에서도 만유이시며 우리 자신 안에서도 만유이시다.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리인으로 만유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대속자 그리스도가 우리 죄의 만유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없이 소망을 둘 분이 있는가?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없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통로로 보여 주신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보증이시고 만유의 총체시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시간과 영원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선물로 주셨다. 과거의 죄는 지워 버리고 현재의 필요는 채워 주시고 미래는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 필요의 만유시요, 바라는 것의 만유시며,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것의 만유시다.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탁월함을 나타낸다. 세상에는 좋은 약은 많이 있지만 만병통치약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 안전, 신성, 평화, 풍성, 아름다움, 치유, 도움, 위로, 정복, 생명, 승리, 영생이시다. 그리스도가 만유시라면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제국의 황제보다 부요한 자요, 그 분을 의심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해야 한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격이 되었다고 두려워 말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호자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우리의 만유이시니 그 분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 입고 새사람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조국을 위해 기도하자.

-한국장로신문 [1497호] 2016년 3월 19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Sister Lumie Hw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Col 3:12-17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In the Name of the Lord"	Pastor
* Hymn	619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서울교회 QR코드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강아곱·주한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바컨전(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아 망, 탕, 씬, 코, 카, 마이, 항, 사무알, 레이, 난, 쌍, 싼다, 사우, 키옴, 랑, 흐라, 라비,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제28권 제10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11:40) 2018년 3월11일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한국교회의 3.1운동 "

■ 갈 5:1

지금으로부터 99년전인 1919년 기미년 3월 초하루 오후 2시경 일어났던 3.1 운동은 민족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당시 3.1운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애국과 독립의 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양심이 되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지적하면서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우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멸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웁니다.

1. 율법과 세속적 타락에서 자유하라

본문 갈라디아서에는 사도 바울이 자유를 강조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율법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었으므로 다시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매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 아내의 강하고 집요한 성적 유혹을 절대적인 신앙으로 뿌리치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었음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그 옛날 3.1 정신을 이어받아 죄악에 맞서 단호하게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2.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죽기까지 복음주의와 독일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신자 각자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정열과 생명을 다 쏟아 부으므로 조국의 번영과 행복과 독립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또한 3.1 운동은 해방과 자유를 얻기 위한 자유운동 이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등 우리들의 입장을 알릴만한 어떠한 능력까지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 문화의 자유 등 어떠한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 못지않게 자유를 찾는 데는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게 얻은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데는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적인 구속에서 풀려난 자유만 알았지 그 소중한 자유를 자신의 삶의 주변과 화합하며 공유하고 존중하는 자유의 용도와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유를 찾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유를 올바르게 쓰는 사람들이 세상과 화합하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맺는 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시간만이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의 구원을 얻으며 진정한 자유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만이 영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미년 3.1 독립만세 운동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표출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지도했다 함은 우리 한국교회가 영원히 기억해야할 소중한 경험인 것입니다. 그 발자취를 계승하여 이 나라 민족 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으로서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3.1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민족 앞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영적으로 신실한 참 자유인으로써 신뢰와 믿음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위험스럽기만 한 이 시대에 경건과 절제로 3.1 독립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조국을 되찾은 것처럼, 이제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들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참 자유인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림인식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Ⅰ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안인호 장로
Ⅱ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이계홍 장로
Ⅲ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송인권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히 10:19-2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2(6)·····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127(사순절4)···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맡 은 이
찬 송 Hymn ·····70(79)···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부: 시 19:1-6, 2부: 시 19:7-11, 3부: 시 19:12-14···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1부: 하나님, 2부: 복음, 3부: 우리···	라은성 목사
* 찬 송 Hymn ···1부:14(30), 2부:298(35), 3부:363(479)···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서명철 목사, 설교: 김영호 선교사

묵 도	다 함 께
성 시 ····· 행 1:8 ·····	인 도 자
찬 송 ····· 505(268) ·····	다 함 께
기 도	정완진 집사
성 경 ····· 사 49:8-21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예루살렘의 회복" ···	설 교 자
* 찬 송 ····· 280(338) ·····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오충례 권사
성 경 ····· 창 39:19-23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 ·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지난주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Ⅰ부								
수요Ⅱ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 5:1)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1. 오늘부터 매 주일 오후 4시30분 찬양예배 전 부목사들이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본당에서 인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정현구(치과), 공민호(신경외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김봉배(통증의학), 김동건(치과) 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14. 라은성 목사 소개
    고신대학교(B.A.)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Th.M.) 미국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Th.M.) 미국
    University of Pretoria(Ph.D.) 남아공
    현재 총신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1,003명	248명	362명	1,613명	156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3/4)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3월 4일	헌금	50,015,070	
"	특별예배비		1,000,000
	찬양운영비		7,100,000
"	교회학교운영비		445,000
	교구운영비		20,000
	선 교 비		500,000
	경 조 비		390,000
"	출 판 비		270,000
	복리후생비		37,000
	통 신 비		8,870
	수도광열비		7,938,850
	사무용품비		6,300
	소모품비		917,440
"	세금과공과		170,280
	환경유지비		424,000
	수선유지비		430,000
	식당운영비		936,300
"	합 계	50,015,070	20,594,040